

인생에도 봄은 옵니다.

인가은

매년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가족들과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지만, 2020년의 봄과 가을에는 벚꽃이 만개해도, 붉고 노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도 우린 먼발치에서만 바라봤고 우리가 걸어야 할 자리에는 폴리스라인, 즉 질서 유지선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에게 코로나는 5년 전, 메르스와 비슷하게 잠깐 있다 지나갈 바이러스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구 사람들과 신천지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벌써 9개월째 우리 삶에 자리를 잡아 나와 너무 가까워서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나의 삶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코로나가 미운 감정이 들고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의 바람은 단지 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식사를 하고, 손을 맞잡고 산책을 하고, 따뜻한 미소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참히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바라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나와 동행하며 매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4시간을 함께 있기에 나는 그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고, 그들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항상 옆에 있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지 서너 달이 넘어

가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지 곁에만 있어 주어도 고마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나는 항상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바라고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 또한 크게 느껴졌다. 따사로운 햇빛이 비춰지는 봄이면 벚꽃을 보러 나가는 것도, 가을이 되면 거리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도록 낙엽들을 밟는 것도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 항상 제자리를 콧꿨이 지키는 자연이었기에 나는 당연하게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삶은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진자만 늘어만 가는 상황으로 변하자 점차 난 지쳐갔다. 지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자 창문 너머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과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지친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녹여주는 꽃과 나무들은 나의 모든 짐들을 다 가져가 주었다. 그때 강하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자연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코로나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이 고난의 시기를 "시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 여정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겪었던 너무나도 거대하고 세찬 태풍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태풍처럼 다가왔다가 곧 지나갈 시기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또한 코로나를 통해 '시간'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코로나를 만나기 전, 나에게 '시간'이라는 건 내일 또다시 주어질 것이라고 여겨졌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분들과 확진을 판정받아 오늘내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한 시간만이라도 살아보고 싶었던 소중한 하루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옛날 말 그대로 시간이 금처럼 느껴진 그때부터는 시간은 나에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되었고, 조금은 과

장해서 말하자면 큰돈을 벌어 내로라하는 한 분야의 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은 나의 보통의 일상에서 재미를 경험하고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도치 않은 칩거 생활로 집에서 콕 박혀있던 오랜 시간 동안 비록 비행기 한 번 타지 못했고 여행 한 번 갈 수 없었지만, 다양한 책을 읽고, 좋은 영화들도 많이 보고, 가족들끼리 더 많이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 책장 구석에 있던 먼지로 인해 더러워진 책들을 닦아내며 읽어보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영화관에서는 할 수 없는 편한 자세와 이 사람이 나쁘다더니 저 사람이 별로다더니 가족들과 토론하며 영화를 관람하고, 습기가 가득한 마스크를 차고 집 앞 놀이터를 걸으며 엄마와 때로는 아빠와 단둘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갔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색을 하고 내 안의 있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보통의 일상에서 알지 못했던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주했다.

하찮게만 느껴지던, 나의 모든 것들을 앗아갔다고 생각되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잃은 것보다 더 거대한 행복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곧 고등학생이 될 나에게는 이 시기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 감사로 느껴진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많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기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방역 당국의 요청을 따라야 하겠지만, 마냥 집에서 보낼 시간들과 습기가 가득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갑갑하지만은 않다. 보통의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초반 단계와 겹쳤던, 열심히 자라나는 새싹들의 입학과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고, 나보다 어린 어린이집을 다니는 꼬꼬마 아이들이 마스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코로 숨 쉬며 느껴보는 것은 또 다를 텐데 말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보다는 더 자란 우리가, 나와 같은 청소년들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마주했을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 같다. 미래의 다음 세대들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과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슬픔을 마주하지 않도록 말이다.

계절에서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겨울은 지나고 아름다운 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찾아올 것이다.